

# 보츠와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6

## I. 일반개황

면적	582천 km <sup>2</sup>	G D P	169억 달러 (2017년)
인구	2.2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7,745달러 (2017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ula (P)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10.68 (2017년)

- 아프리카 남부의 남아공 북쪽에 접경한 내륙국인 보츠와나는 한반도의 2.7배에 이르는 넓은 영토에 인구는 2.2백만 명(2017년 추정)에 불과하나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상위에 해당되는 나라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니켈, 철광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 상품수출의 88%를 점유하는 다이아몬드(매장량 세계 3위) 등 광물자원의 생산·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총외채잔액/GDP 비중이 평균 20% 미만으로 유지되고 D.S.R.이 평균 2%대 중반으로 관리되는 등 외채관리가 양호함.
-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부족 간의 갈등이 적고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국제신인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17년 11월 현재 OECD는 2등급, Moody's는 A2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다이아몬드 생산·수출 호조로 4%대 중반의 경제성장률 전망

- 보츠와나는 국가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다이아몬드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2013년 11.4%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세계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2015년 -1.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그쳤음.
- 보츠와나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기업인 Debswana의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타고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6년 4.3%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비광업 부문의 성장과 공공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4%대 중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 Debswana :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기업인 남아공 De Beers의 자회사로, 1969년 설립되었음.
  - Bloomberg의 2017.7.31자 보도에 의하면, Debswana는 2017년 자사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인 2,200만 캐럿으로 예측함.

#### □ 신중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은 편

- 보츠와나 정부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온 결과 2000년대 들어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거나, 적자를 기록해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3년간을 제외하면 적자폭이 크지 않음.
  -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한 보츠와나의 재정수지/GDP(%) : 5.6('07) → -7.5('08) → -13.3('09) → -7.4('10) → -0.1('11) → 0.8('12)
- 2012년 흑자를 회복하여 2014년까지 흑자를 유지한 재정수지는 이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침체에 따른 다이아몬드 수출가격 하락, 경제특구 (economic zones)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2015년 GDP의 -4.8%로 적자 전환하였음.

- 재정수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보츠와나 정부가 여전히 신중한 재정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6년 -1.1%로 전년대비 낮아진 데 이어 2017년에도 -0.1%로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3%대 후반으로 상승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Pula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임금 인상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를 비롯한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3년 이래 하락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2.8%로 2013년 대비 3.1% 포인트나 하락하였음.

\* Pula화/미 달러 환율(연간 평균) : 8.40('13) → 8.98('14) → 10.13('15) → 10.90('16) → 10.68('17<sup>e</sup>)

- 보츠와나 중앙은행(BoB)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중기적 목표치를 3~6%로 설정함. 2014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 이하를 유지함에 따라, BoB는 최근 정책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5%로 인하하였음.

- 2017년에는 Pula화 약세 지속, 원유를 비롯한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 추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후반으로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e</sup>
경제성장률	11.4	4.2	-1.7	4.3	4.5
재정수지 / GDP	5.9	3.7	-4.8	-1.1	-0.1
소비자물가상승률	5.9	4.4	3.1	2.8	3.7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나, 제조업 부문 육성 등을 위한 노력 지속

- 보츠와나는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차산품, 특히 다이아몬드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 및 그에 따른 다이아몬드의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
- 정부는 농업, 제조업 등 비광업 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MF는 보츠와나에 대한 2017년도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No.17-249, 2017. 7. 14자)에 의하면 광업 부문(다이아몬드 포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16년 20%로 낮아졌음.
- 그럼에도 다이아몬드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상기 보고서는 다이아몬드 수출액이 2016년 정부 재정수입의 37% 및 상품수출액의 88%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 전력공급 등 인프라 부족이 경제발전에 걸림돌

- 보츠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보츠와나의 전 인구 대비 전력공급률은 2014년 기준 56.5%에 그치고 있음. 발전방식은 100% 화력발전(95.8%는 석탄화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상위권으로 평가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보고서에 따르면 보츠와나의 경쟁력 순위는 2014/15년 74위(조사대상국 144개)에서 2016/17년 64위(조사대상국 138개)로 10계단 상승하였으며, 2017/18년에도 63위(조사대상국 137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리셔스(45위), 르완다(58위), 남아공(61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부문별로는 거시경제환경(13위)과 노동시장 효율성(40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보건 및 기초교육(107위)과 시장규모(108위)에서는 220만 명에 불과한 인구 규모(2017년 추정치)와 높은 HIV 감염률(성인 100명 중 21.9명 감염 추정)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음.

- 인프라 영역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 수(14위)와 철도(54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력공급(99위)과 항만시설(109위)에서는 발전소 부족과 내륙국이라는 입지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음.

## 나. 성장 잠재력

### □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의하면 보츠와나는 세계 3위 규모의 다이아몬드 매장량(1.3억 캐럿)을 보유하고 있음. 2016년 보석급 다이아몬드(gem diamond) 생산량은 1,500만 캐럿으로 러시아(2,350만 캐럿)에 이어 세계 제2위 생산국임.
- 보츠와나산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산업용급(industrial diamond)이 아닌 보석급이며, Damtshaa, Jwaneng, Letlhakane, Orapa의 4개 광산을 중심으로 채굴되고 있음.
  - Research & Markets社의 “Diamond Mining in Botswana to 2020” 보고서(2016.3월)에 의하면, Orapa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킴벌라이트 파이프(kimberlite pipe) 다이아몬드 광산들 중 하나로 너비 1km, 깊이 1.5km 규모의 킴벌라이트 파이프 2개를 보유하고 있음.
    - \* 킴벌라이트 파이프 : 거꾸로 세운 원뿔 모양의 다이아몬드 광상(鑛床)
- 다이아몬드 외에 구리, 니켈 등의 금속광물도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 관광 부문의 풍부한 개발 잠재력 보유

- 보츠와나는 Okavango 삼각주, Moremi Game 자연보호구역, Kalahari 사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부문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보츠와나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끼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특히 Chobe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케냐, 탄자니아와 같은 사파리(safari) 관광의 개발 잠재력이 높음.

## □ 내륙국으로서의 지리적 약점, 척박한 토질, 작은 인구규모로 성장에 한계

- 보츠와나는 내륙국이므로, 상품의 수출입 수송을 남아공 등 바다에 면한 인접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지리적 약점을 지니고 있음.
  - 서부 및 북부는 나미비아, 동부는 짐바브웨(내륙국), 남부는 남아공에 면하고 있음.
-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온난 반건조(semi-arid) 기후로 (남부의 Kalahari 사막은 온난 사막 기후) 토질이 척박하며,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인구밀도가 1km<sup>2</sup>당 4명에 불과하여 (2016년 인구는 총 215만 명으로 추정) 경제성장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의 대부분이 남동부에 위치한 수도 Gaborone와 그 인근, 중동부에 위치한 Francistown에 밀집되어 있음.

## 다. 정책성과

### □ 정부의 공공투자 규모 증대로 GDP의 11% 내외의 공공투자 지속

- IMF가 2017년 7월 발간한 보츠와나의 공공투자운영 평가보고서(Public Investment Management Assessment Report)에 따르면, 보츠와나 정부는 지난 25년 간 신중한 재정정책 운영 속에서도 공공투자 규모를 계속 증가시켜 현재 역내국들은 물론 여타 신흥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GDP의 11% 내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공공투자 재원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외채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공투자의 60% 이상은 경제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25%가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사업환경은 세계 중위권이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위권

- 보츠와나 투자청에 의하면 보츠와나는 외국인 규제가 없고 사업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의 운영이 가능함.

- 법인세율은 15~22%이며, 소득세율은 최고 25%로 아프리카 대륙 평균 (27.85%)보다 낮음. 또한 플랜트, 기계류의 수입에는 관세가 면제됨.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보츠와나의 사업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8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25위), 르완다(41위), 케냐(80위)에 이어 4위에 해당하며, 남아공(82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순위임.
- 부문별로는 납세(47위), 국경무역(50위), 건축허가 취득(59위)의 순위가 비교적 높고 소수투자자 보호(76위), 자금조달(77위), 도산절차(79위)도 비교적 양호한 반면, 전력사용(124위), 계약이행(133위), 창업(153위)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 산업다각화와 고용 증대를 목표로 경제개발 정책 추진

- 보츠와나 정부는 광업 부문에의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코자 2016년 2월 경제촉진프로그램(Economic Stimulus Program, ESP)을 발표하였음.
- ESP는 경제구조 다변화, 전력·상하수도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환경 개선 국내기업 육성 등을 통한 비광업 부문 육성과 고용 증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음.
- 아울러 보츠와나 정부는 2016년 10월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인 “비전 2036; 모두를 위한 번영”(Vision 2036; Prosperity for All)을 발표, 2036년까지 4대 목표의 달성을 천명하였음.
- 4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생산성 향상, 산업다각화, 수출주도형 경제 구축으로 고소득국 진입), “인간 사회 개발”(Human Social Development; 기회균등 제고와 복지 향상),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 천연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 “거버넌스·평화·치안”(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인권존중, 역내 평화 유지, 치안 강화)으로 구성됨.
- \* 보츠와나는 세계은행에 의해 중상위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됨. 현재 중상위소득국 기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956달러 이상 12,235달러 이하이며, 보츠와나의 1인당 GNI는 2016년 6,610달러로 추정됨.



- 보츠와나 정부는 ESP와 Vision 2036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 4월 발표한 제11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17~23년)을 수립, 발표하였음.
- 본 계획은 경제다각화, 수출 주도의 성장, 경제의 민간 부문 환경 개선, 사업환경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 개편,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침체기에도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침체로 다이아몬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2013년 및 2015년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흑자 유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2013~16년 연속으로 흑자를 유지하였음.
- 인접국인 남아공 등에 주로 광산 노동자로 취업한 보츠와나 국민들의 자국 앞 송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경기 호전과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16%대 초반의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됨.

#### □ 2017년 기준 월평균수입액 1년분에 육박하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유지

- 2017년 말 보츠와나의 외환보유고는 다이아몬드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증가로 전년 말 대비 6.0% 증가한 7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보츠와나의 2017년(이하 추정치) GDP의 44.3%, 총외채잔액의 256.2% 및 월평균수입액의 11.8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총외채잔액/GDP 비중과 D.S.R. 모두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이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말 18.5%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17%대 초반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2015년부터이며 그나마도 GDP 대비 비중이 매우 낮고(2017년 -0.1% 추정),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압력이 낮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2%대의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7년 말에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1,413	2,490	1,196	1,985	2,741
경 상 수 지 / G D P	9.6	15.3	8.3	12.8	16.2
상 품 수 지	-85	760	-650	505	1,533
수 출	7,925	8,517	6,288	6,375	7,578
수 입	8,011	7,757	6,939	5,871	6,045
외 환 보 유 액	7,546	8,153	7,390	7,055	7,476
총 외 채 잔 액	3,219	3,339	3,030	2,878	2,919
총 외 채 잔 액 / G D P	21.8	20.1	21.0	18.5	17.3
D S R	4.3	1.2	2.8	2.6	2.2

자료: IMF, EIU, OECD.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독보적인 정치적 안정성 유지

- 1966년 9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초대 대통령 Seretse Khama가 결성한 보츠와나민주당(BDP)이 독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음.

- 그러나 일찍이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독립 이래 단 한 번도 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 정치적 불안요인을 경험하지 않고 있음.
  - BDP의 정권 장악 지속도 선거에 의한 결과이며,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만연된) 선거를 전후한 폭력 사태도 경험하지 않고 있음.
- 보츠와나는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에서 호선(互選)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1998년 야권의 요구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임기 5년)은 1회 연임만 가능해짐.
- 2008년 4월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Seretse Khama Ian Khama 現대통령은 Seretse Khama 초대 대통령의 장남이나, 부친(1980년 퇴임)으로부터의 권력 승계가 아닌 BDP 소속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거쳐 대통령에 선출되었음.
  - Khama 대통령은 1998년 7월 총선에서 국민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같은 해 부통령으로 선출, 대통령 취임 전까지 부통령으로 재직하였음.
- 2018년 3월 Khama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역시 BDP 소속인 Mokgweetsi Masisi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영 Bamangwato 광산의 폐쇄에 따른 실업 증가 등으로 BDP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BDP의 정권 유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4개 야당이 연합하여 2019년 예정된 총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야당 연합이 내부 분열과 리더십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부족 간의 갈등이 적어 사회안정이 지속되고 치안도 양호한 수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회를 구성하는 부족의 숫자가 적어 부족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명(國名)의 기원이 된 Tswana 부족이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며, 소수 부족들이 각자의 전통적인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서부의 Okavango 삼각주(delta)와 Kalahari 사막 지역에는 부시맨(Bushman)으로 알려진 San 부족이 원시 수렵생활을 고수하며 거주하고 있음.
- 호주의 글로벌 싱크탱크인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Global Peace Index 2017 보고서에 의하면, 보츠와나는 전 세계 조사대상 163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여 치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이탈리아(38위)는 물론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겪은 영국(41위), 프랑스(51위)보다도 높은 순위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조사대상 44개국)에서는 모리셔스(세계 22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임.

#### □ 부정부패 문제가 적어 정치적, 사회적 투명성 양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 비해 정부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가 적어 정치적, 사회적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보츠와나는 2016년 176개국 중 35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상위이며, 스페인(41위)은 물론 우리나라(52위)보다도 더 높은 순위임.

#### □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위한 San 부족의 강제이주 문제

- San 부족의 전통적 거주지역에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신규 발견되자 보츠와나 정부는 광산 개발을 위해 San 부족 주민들에게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강요하였으며,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식수 공급 차단, 수렵행위 금지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 높은 HIV 감염률로 인한 보건 및 사회적 손실 문제 심각

- 보츠와나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병원체인 HIV(바이러스) 감염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임.

- UN 산하 UNAIDS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성인(15~49세) 인구의 21.9%가 HIV에 감염된 상태이며,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6년 기준 3,900명에 달함.
- 보츠와나의 의료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낮은 관계로 적절한 예방/치료를 통해 HIV 감염 및 AIDS 발병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AIDS 발병으로 인한 기대수명 단축과 노동 불가능 인구 증가 등 노동력 손실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보츠와나 국민의 기대수명은 65.7세(남성 63.3세, 여성 68.1세)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137위에 그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서방 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 보츠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고 안정화된 나라로, 서방 국가들은 동국을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보츠와나는 2014년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 중 6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체결되어 2016년 10월 발효된 경제동반자협정(EPA) 참여국의 하나로, 향후 EU와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6개국 :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스와질랜드

####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일원으로, 동료 회원국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 유지

- 보츠와나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회원국으로, SADC의 리더인 남아공을 비롯한 동료 회원국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 아울러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에도 가입해 있음.
- SADC : 1992년 8월 창설된 지역협력체로 현재 1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부는 보츠와나의 수도 Gaborone에 위치함.

- SACU : 1910년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관세동맹으로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의 5개국으로 구성됨.
- 다만, 1차산품 생산 및 수출이 중심을 이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 특성상 SADC 동료 회원국들과의 교역규모는 산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남아공과의 교역을 제외하면 상호 대체성의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임.
- UNCTADstat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보츠와나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벨기에(보츠와나 상품수출 총액의 26.2% 점유)\*이며, 이어 인도, 남아공, 나미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보츠와나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임.
- \* 이는 보츠와나의 상품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앤트워프)이기 때문임.
- 한편, 인접국이자 역시 SADC 회원국인 짐바브웨로부터 최근 물러난 Robert Mugabe 前대통령의 장기간에 걸친 독재정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난민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짐바브웨와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음.

#### □ 투자 및 교역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

-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그간 보츠와나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고속도로, 교량,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의 건설 및 투자에 참여해 오고 있음.
- 보츠와나-중국 간 무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다만, 최근 보츠와나 정부가 티베트의 망명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자 달라이 라마를 반중(反中)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중국 정부의 강경한 반발에 직면하여 보츠와나-중국 관계가 잠시 냉각된 바 있음.
- 보츠와나 정부는 지난 7월 26일 달라이 라마를 8월 중 자국에서 열리는 인권 문제 관련 회의에 초청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달라이 라마의 자국 방문을 허용하는 국가들에 무차별적인 압력을 가하는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한 결과 달라이 라마 측이 보츠와나 방문을 취소하였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안정적인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보츠와나는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통해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여, 대다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음.
- 2017년 8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보츠와나에 대한 익스포저는 단기대출 630만 달러, 중장기대출 2,000만 달러이며, 원금 및 이자 연체는 없음.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연체도 없음.

#### □ 외채구조는 매우 양호하며, 공공부채 비중도 안정적 수준 유지

- 2017년 말 단기외채잔액(4.4억 달러)은 총외채잔액(29.2억 달러)의 15.0%로 추정되며, 총외채잔액도 외환보유액(74.8억 달러)의 39.0% 및 총수출액(91.8억 달러)의 31.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IMF에 의하면 보츠와나의 공공부채/GDP 비중은 최근 수년 간 20% 미만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15%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채/GDP 비중(%): 17.5('13) → 17.4('14) → 16.4('15) → 15.5('16) → 15.5('17<sup>o</sup>)

### 2. 국제시장평가

#### □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A등급 획득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보츠와나의 정치·사회적 안정 지속과 양호한 채무구조 및 외환보유고 등을 높이 평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대해 A등급권의 신용등급을 계속 부여하고 있음.



- 2017.11월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한 아프리카 국가들(아프리카 대륙 전체)은 보츠와나 외에는 모로코,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공의 4개국\*에 불과함.

\* 모로코 : BBB- (Fitch) / 모리셔스 : Baa1 (Moody's)  
 나미비아 : BBB- (Fitch) / 남아공 : Baa3 (Moody's)

- OECD도 동일한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아프리카 대륙 전체) 중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대해 2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17. 6)	2등급 (2016. 6)
Moody's	A2 (2016. 4)	A2 (2015.12)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8. 4. 18 (북한과는 1974. 12. 5 수교, 2014. 2. 19 단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86)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 6월말 기준 2건, 66천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3,453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섬유사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광(銅鑛), 보석 등임.

<표 4> 한·보츠와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1~9	주요 품목
수 출	9	11	34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섬유사
수 입	21	26	1	동광, 보석
교역규모	30	37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 및 그에 따른 다이아몬드의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 이에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다이아몬드 수출 증가, 비광업 부문의 성장 및 공공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4%대 중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 신중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용으로 2000년대 들어 재정수지는 흑자 또는 소폭의 적자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2013년 이래 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음.
- 최근 3년 간 총외채잔액/GDP 비중이 평균 20% 미만으로 유지되고 D.S.R.이 평균 2%대 중반으로 관리되는 등 외채관리가 양호함. 공공부채/GDP 비중도 최근 수년 간 20% 미만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으로 독립 이래 단 한 번도 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 정치적 불안요인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투명성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보츠와나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A등급권의 신용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으며, OECD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대해 2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